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V 드라마, 인기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방송위 주최 토론회서 제기... 자극적 소재·비윤리적 갈등 구조 등 원인



드라마는 다른 방송장르에 비해 시청률은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토론회에서 발표한 '지상파TV 3사 드라마 편성현황 분석'에 따르면 시청률은 15개 장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장르별 방송시간 비중은 뉴스(16.3%)에 이어 드라마(16.1%)가 2위를 차지했으며 방송시간과 시청률을 토대로 실제로 시청자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를 측정하는 방송도달률은 28%로 2위인 버라이어티쇼(14%)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방송위는 "이러한 결과는 방송사들이 드라마 편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른 장르에 비해 시청률 성과가 압도적인 드라마는 방송사 입장에서 스테이션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고려를 위해 뉴스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장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족도와 질적 평가 등을 반영한 '방송위원회 수용자평가지수'(KI)는 시청률과 방송도달력에 비해 낮았다.

8월에 방송된 지상파TV 3사 전체 프로그램의 KI 평가점수는 7.06점(10점 만점)이었지만 드라마 장르의 점수는 6.96점으로 평균에도 못 미쳤으며 전체 15개 장르 중 1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토론회의 공동발제를 맡은 정영희 이화여대 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방송위가 분석한 '지상파TV 주요 드라마 내용분석 결과'를 인용해 시청대상과 드라마의 소재, 가족관계에 대한 묘사, 드라마의 표현 등에서 문제의 여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드라마는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TNS의 시청률 조사결과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의 시청이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희 연구원은 "이는 해당 드라마가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고 있으므로 어린이가 청소년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또 "TV드라마의 소재 논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극적 재미를 위한 장치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결혼 전 과거나 출생의 비밀, 혼전 임신, 불륜 등 불안정한 가족관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비윤리적 갈등 구조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상파TV 프로그램 중 드라마 장르의 시청률은 가장 높지만 질적 평가는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25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TV 드라마의 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한 주간의 여행과 레저, 문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10월 넷째 주에는 가을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다.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교육부 개방형 자율고등학교 선정소식과, 내달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 번호판의 문제, 국내 휴대전화

가격의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이슈가 됐던 사안을 살펴보는 '뉴스와 이슈'코너에서는 서울시 노숙자를 만나 그들의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사회 인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인 '피플 인사이트'에서는 스탠딩 개그의 선두로 활동하던 아동 연극연출가



서승만씨를 만나 그의 근황과 연출가로서의 인생이야기를 듣는다.

Advertisement for 'Living TV' featuring 'News Morning Living Today' (오전 8시 20분) and 'National Security' (국제보청기) with promotional offers.

케이블·위성TV 26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the day.